

개헌논의 본격화...대선전 현실화 될까

특위 출범...위원장에 이주영
권력구조 개편·지방분권 논의
조기 대선편 추동력 없어
문재인 부정적 의견도 변수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국회 헌법 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새해 첫날 출범한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선후보 간에 개헌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새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개헌론과 맞물려 거론되는 임기단축 문제를 놓고도 대선후보 사이에 각이 세워지고 있어 개헌과 임기단축 문제가 향후 대선 정국에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는 다음달 1일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의 새누리당 이주영(5선)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36명의 특위 위원은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개헌특위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등 30여년 동안 논의된 개헌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87년 민주화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고 임기 말 부정부패와 권력 누수 현상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체할 시스템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같은 곳 다른 생각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29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5주기 추모행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된 상황이다. 개헌의 현실적인 관건은 내년 대선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는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일부 유력 대권 주자가 당장 개헌을 하는 데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하지만, 과거에는 개헌을 위한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던 반면 지금은 개헌의 공감대가 넓어졌고, 현재의 정치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보장도 없어 개헌이 어렵다고 숙단하기는 이르다

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개헌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후보들을 '호헌 세력'으로 몰아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도 가장 적극적인 개헌파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5주기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게 나라냐'는 것으로 나라의 틀을 바꾸자는 게 공장의 민심"이라며 "한번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호헌제는 수구파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들 문 전 대표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3년 임기 단축을 말한다"며 다음 정부는 내각제 또는 의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한 직접적 비판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 지금 임기단축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그리고 저는 그것이 훗날 민심에 부합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 개헌특위 멤버구성 물밑 신경전

14명 선출에 38명 신청...대권 주자 측근들도 지원

국회 개헌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특위 멤버구성을 둘러싼 물밑 기 싸움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당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대선 전 즉각 개헌'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특위의 진용과 논의 항배가 대권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원내 지도부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공언했지만, 비문 진영에서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인사들이 특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친문 진영 견제에 나서고 있다. 당장, 민주당에 할당된 특위 위원 수는 14명이지만 29일 오전까지 원내 지도부에 38명의 의원이 신청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들의 측근들도 1~2명씩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 알려졌다. 이 특위에서 개헌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차기 대권구도가 출렁일 수 있는 만큼, 각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특위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특위에서 개헌 논의가 급진전된다면 개헌을 매개로 원심력이 강해지면서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대표 측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후보주자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대세론'이 흔들리면서 새로 판을 짤 기

농·어민 지원 'FTA 특별법' 통과

이개호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영광 함평 담양 장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FTA 특별법'(자유무역협정제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조원에 달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마련된다. 이 개정법안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농어촌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설치 근거와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민간기업·공기업·농협·수협 등이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되,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족한 액



수를 총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FTA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하고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도 종전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한·중 FTA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미약한 금액이지만, 중국산 농수산물 피해 대책에 매년 1000억원씩 안정적 투입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누리 인명진 비대위원장 인준

새누리당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 열고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진했다. 애초 전국위원회 성원이 모자라 비대위원장 선출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전국위 재적위원 759명 중 과반인 467명이 참석해 인 위원장 추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수락 연설에서 "보수의 중요한 가치는 책임"이라면서 "모든 개혁의 시작은 과거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에 대한 책임지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면서 "보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인 위원장은 특히 "잘못에 책임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며, 희생도 필요하고 실수를 스스로 드러낼 용기도 필요하다"며 "때로는 '왜 내가'라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비대위 구성은 내달초에 이뤄질 예정인. 인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비대위에는 개혁 성향의 당내 초·재선 의원은 물론 참신한 외부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몽준 새누리 탈당...신당 합류는 즉답 피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 대표를 지낸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29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정 이사장 측은 이날 오전 공식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탈당을 결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실정치에 관여해오지 않았던 만큼 일찌감치 당적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던 터에 조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도 불거진 데 대해 전직 당 대표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개혁보수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로서는 특정 정당에 합류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즉답은 피하며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대표와 상임고문까지 지낸 정 이사장의 전격적인 탈당을 가칭 개혁보수신당이 내년 1월 공식 창당을 목표로 세(勢)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 연결지으면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정 이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당성 의원이 최근 개혁보수신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에 선임됐고, 또 다른 측근인 안호태 전 의원도 새누리당 탈당과 신당 합류 시기를 조율하고 있어 정 이사장도 조만간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광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7천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건물] 순천시 풍덕동 중앙초교 인근 주상복합지대 10층 건물 토지 349.4㎡ 건물 2,281.94㎡ 감정가 24억3천 ▶ 최저가 17억
- ★ [무인텔최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북하면 악수리 백암사남서측 포장도로점 토지 926㎡ 건물 837.49㎡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광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광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공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에 담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토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황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